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시민들이 GMOOUT!을 외치는 이유

2020 온라인 몬산토반대시민행진 그리고 기자회견

문재형
GMO반대전국행동 상임집행위원장 · 한살림연합 실무자

만 4살과 6개월 된 두 아이의 아빠로서 육아휴직을 하고 있다. 출근하는 아내를 뒤로하고 아이들을 건사하는 라떼파파지만 종종 같은 이유로 핀잔을 듣는다. 평소라면 화가 날 법도 한데 지금 시국에는 할 말이 없다. 코로나19 상황 임에도 실수로 아이들 마스크를 챙기지 않았으니 혼날 만한 일이다. 그렇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19(COVID-19) 팬데믹(Pandemic) 시대. 이 글을 작성하며 들여다본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확진자가 6백만 명에 달하고 사망자는 4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온 세상이 벌벌 떨고 있다고 할 만한 재앙이며 실제로도 그렇다.

마스크가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에 시민들이 모여 행진을 할 수 있을까? 최악의 경우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에서 GMO 반대를 외칠 수 있을까? 올해 몬산토반대시민행진(March Against Monsanto)[1]은 기획 단계부터 고민이 많았다. 그동안 몬산토반대시민행진 기획을 함께 했던 사람들, 단체들과 머리를 맞대고 행진 개최 여부에 대해 논의를 했다. 의외로 답은 간단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낼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게 공통된 이야기였다. 더욱이 국내 GMO문제는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라도 GMO를 반대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보여줘야 하고 그러지 못한다면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염려도 있었다. 그렇게 해서 기획되고 진행된 것이 온라인을 통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2020 '온라인 몬산토반대시민행진'이었고 농민, 생협, 학부모 등 시민사회 각 부문 대표들이 참가했던 2020 '몬산토반대시민행진 기자회견'이었다.

온라인 서명과 인증샷으로 정부와 21대 국회에 'GMOOUT'을 요구

5월 11일(월)부터 3주 동안 진행한 2020 온라인 몬산토반대시민행진[2]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서명'을 기본으로 진행하고 시민 개개인이 말하고 싶은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인증샷'도 더불어 진행했다. 약 1,700명의 시민이 서명을 했고 100여 명의 시민이 인증샷을 보내왔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사라지고 하루하루 그저 아무 일 없기를 바라는 요즘인 것을 감안하면 많은 수의 시민이 국내 GMO 현안들에 문제가 있으며 이를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 것이다.

서명과 인증샷을 통해 정부와 21대 국회에 전달하고자 했던 목소리는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는 'GMO완전표시제'이다. 약 22만 명(216,886명)의 시민들이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에 참여한 지 벌써 2년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표시제는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시민들의 삶은 달라진 게 없다. 후보시절 GMO 표시제 강화라는 공약을 내건 대통령이 현직에 있고 20대 국회 때는 GMO완전표시제 법안이 4건이나 발의되었으나 발의로만 그친 것을 시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GMO표시제 관련 협의체를 시민들이 요구했던 바가 실행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고 새롭게 개원하는 21대 국회는 대표적 민생법안인 GMO완전표시제를 최우선으로 처리하는 것이 시민의 요구임을 강력하게 밝혔다.

1. 몬산토반대시민행진(March Against Monsanto)은 매년 5월 셋째 주 토요일, GMO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여 GMO를 대표하는 기업인 몬산토를 비판하고 GMO 반대 메시지를 외치며 벌이는 행진이다.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며 국내에서는 2013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2. 2020 온라인 몬산토반대시민행진 결과는 6월에 새롭게 개원하는 21대 국회에 전달하여 GMO에 대한 시민들의 구체적인 요구를 명확하게 알릴 예정이다.

다음으로 'GM감자'다. GM감자 E12 안전성 논란[3]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지 2년이 다 되어 간다. 하지만 국내 수입 승인 절차가 여전히 취소되지 않았으며 심사 보류인 상태로 심사 목록에 남아 있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의 목소리도 담겼다. 이와 같은 처사는 시민들로부터 정부에서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만드는 것은 물론이며 GM감자 반대 여론이 잠잠해지면 조용히 승인할 수 게 시점을 재고 있는 것은 아닌 의심이 가게 만들고 있다. 더군다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E12에 이어 SPS-Y9이라는 이름의 GM감자도 수입 승인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수입과 동시에 식탁에 오를 위험이 있는 GM감자를 원하는 시민은 없다. 시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승인 절차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자생 GMO'에 대한 염려도 있다. 국내법에 의하면 국내에서 GMO를 재배하는 것은 불가하다[4]. 하지만 다양한 자생 GMO 관련 활동과 데이터에 따르면 상당히 많은 GMO가 국내에 자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5]. 2017년 정부 과실로 자생하게 된 GM유채와 사료용으로 매년 약 800만 톤 수입되고 있는 사료용 GMO는 이와 같은 현실을 만들어 낸 대표적인 원인이다. 정부는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관리 현장을 보았을 때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고 관리 햇수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최근 시민들의 자발적 활동을 통해 관리되지 못했던 GM유채가 발견된 것[6]처럼 자생 GMO 관리는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더욱이 사료용 GMO는 워낙 수입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수준의 관리 수준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국내 자생 GMO로 인한 농지와 자연환경의 GMO 오염을 막을 수 있게 정부의 실효성 있고 진정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GMO 기술인 '유전자가위(CRISPR Cas9)'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담겨있다. 유전자가위는 본래 종의 유전자에 다른 종의 유전자를 삽입하는 일반적 GMO와 다르게 본래 종의 유전자에서 원치 않는 부분을 인위적으로 잘라내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GMO 개발 진영에서는 유전자가위는 GMO가 아니라 최신의 품종개량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실제 미국과 일본의 경우 유전자가위를 활용해 만든 제품은 GMO 규제를 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 버렸다. 국내 과학계와 보수언론 등은 유전자가위 기술 개발에 찬성해오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우리 정부가 미국과 일본의 상황을 따르지 않을까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새로운 기술이라고 할지라도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건드린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GMO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따라서 정부는 유전자가위도 GMO 기술임을 명확히 하며 유전자가위 제품 수입 시 GMO 관련 법에 의해 다른 GMO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심사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 각 부문 대표 모여 한목소리로 'GMOOUT' 외쳐

2020 몬산토반대시민행진 기자회견은 5월 19일(화) 오후 3시에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행되었다. 처음 기획을 할 때에는 코로나19 상황인 것을 감안해 참가자는 30명 이내로 제한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게 시민사회 각 부문 대표들의 참가를 요청했다. 기자회견 당일, 전날부터 내리던 비가 오전까지 이어져 예정대로 기회회견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언론과 참가단체들의 문의가 계속되었다. 예상보다 적은 인원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될 것을 짐작했지만 막상 기자회견 시간이 다가오니 날씨는 맑게 개였고 조직하지 않은 시민들이 하나둘 자리에 함께했다. 결국 계획했던 30명을 훌쩍 넘긴 80여 명이 GMO 반대 피켓을 번쩍 들고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농업, 학부모, 생협, 종교, 먹거리 부문 등 시민사회 각 부문 대표가 참가해 부문별 발언을 진행했다. 각 부문별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구체적인 내용의 발언을 통해 여러 영역의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국내 GMO 문제의 심각성과 강력한 반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농업 부문을 대표한 유화영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은 "다국적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GMO 종자는 농민들로부터 씨앗주권을 앗아가고 있고 국내 자생 GMO로 인해 농지가 오염되고 있다"고 발언했으며 학부모 부문 대표인 강혜승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은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에서 GMO를 퇴출시키기 위해 GMO완전표시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생협 부문 대표인 강은경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은 "우리 식탁을 위협할 수 있는 GM감자는 용납할 수 없으며 정부는 수입 승인 절차를 취소시켜야 한다"고 했으며 종교 부문 대표로 발언을 한 이진형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국장은 "유전자가위 기술도 GMO 기술임이 명확하기 때문에 GMO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언했고 끝으로 먹거리 부문을 대표한 고재섭 국제슬로푸드협회 상임이사는 "우리는 GMO라는 정체불명의 먹거리가 아닌 오랜 시간 인류가 지혜롭게 먹어온 먹거리로 식탁을 차려야 한다"고 발언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GMO 표시 강화를 위한 실무 협의회'가 시민 염원인 GMO표시제 시행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길 바라는 'GMO완전표시제 시행' 카드 섹션 퍼포먼스가 이어졌고 기자회견 마지막 순서로 '국민의 염원 GMO완전표시제를 하루빨리 시행하라!' 'GM감자 수입 절차를 임시 보류시킬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철회하라!' 'GM유채, 사료용 GMO 등 국내 자생 GMO 발생 원인들의 관리를 철저히 하라!' '유전자가위 기술도 GMO 기술의 하나임을 선명하게 밝혀라!'를 핵심 요구로 밝힌 몬산토반대시민행진 요구안 낭독과 청와대 전달 절차가 진행됐다. 낭독과 전달은 진헌극 GMO반대전국행동 상임대표, 정한길 농민의길 상임대표 그리고 김영향 두레생협연합회 회장, 이세우 반GMO전북도민행동 대표, 조완석 한살림연합 상임대표가 역할을 했다. 시민들을 대표해 국내 GMO 현안들을 하루빨리 처리하길 바란다는 이들의 절실하고 강력한 목소리가 정부와 21대 국회에 분명하게 전달되었기를 바란다.

코로나19가 말해주는 공익적 가치, '공공성, 보편성, 투명성'

얼마 전 유전자가위 특허를 가진 국내 기업이 개발한 유전자가위 작물[7]이 미국에서 GMO 규제를 받지 않게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시국에도 GMO 연구와 GMO 확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놀라움을 느꼈다. GMO 개발 진영은 평소 'GMO가 인류의 난제를 해결할 것'이라 주장해 왔는데 실제 인류에 위기가 닥친 지금 인위적으로 꽃 색깔을 바꾼 GMO의 역할에 대해 또 어떤 희망적인 말을 할지 궁금증이 들기도 한다.

사실, 코로나19 팬데믹은 만연해 있던 현대의 과학만능주의에 경종을 울렸다. 과학 발달로 인간 복제를 시도하고 유전자를 조작해 자연에 없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시대지만 인류가 처음으로 맞닥뜨린 변종 질병 앞에서 뾰족한 해결책을 만들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대응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독보적인 과학기술 때문인 것만은 아니다. 전염성을 낮추기 위해 인류가 오랜 기간 사용해 왔던 마스크를 생활화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며 시민이 공공의료를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게 시스템을 갖추었고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보를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것이 주목받는 이유이다. 이렇게 '공공성, 보편성, 투명성'에 기초한 공익적 가치는 GMO에 대응해 온 시민의 가치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시민들은 인류가 오랜 기간 동안 먹어온 먹거리를 앞으로도 계속 먹을 수 있을 것을 바란다. 그 먹거리는 사회적 지위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하고 먹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생산이 되었는지 시민이라면 모두가 투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와 21대 국회는 코로나19가 말해주고 있는 공익적 가치인 '공공성, 보편성, 투명성'을 주목하고 GMO 현안 해결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QR코드를 스캔하면
몬산토반대시민행진 기자회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심플로트칸에서 GM감자 개발에 참여한 카이어스 로멘스 박사(Ph. D. Caius Rommens)는 저서 『판도라의 감자』(Pandora's Potatoes)를 통해 GM감자는 색 변화 유전자를 잠재운 것에 불과하고, 원래 없던 독성물질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GM감자가 생태계에 확산될 경우 어떤 영향을 끼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4. 실험용으로 승인받는 GMO만 실험을 목적으로 통제하에 재배할 수 있다.
5. 국립생태원 'LMO 자연환경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27개체의 GMO를 발견했으며 2014년 44개체, 2018년 143개체의 목화, 카놀라, 옥수수 GMO를 발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 2020년 4월 24일 NGO(한살림천안아산)에서 GM유채 관리 활동을 통해 정부 관리 장소가 아닌 곳에서 GM 유채 4점을 발견했다.
7. 충남대와 툴젠 연구팀이 유전자가위를 사용해 새로운 색상의 피튜니아 꽃을 개발했다.